

공동개원에서 의 소아치과위상

에치과의원
주 종 인

I. 서 론

최근의 사회적 경향이나 시대적 조류를 통해서 많은 치과의사들은 공동개원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개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의 성향은 매우 개인적이라고, 대학교육에서는 BIOTECHNICIAN으로 훈련받아 왔기때문에 사람보다는 사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공동개원의 진정한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아직까지도 공동개원이 성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은 대학을 막 졸업한 초년의사들이 진료보다는 진료의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고 느끼는 현실을 통해 잘 이해될 수 있다.

대다수의 치과의사들은 경영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고, 치과보조원들의 고용훈련, 선택, 의사소통에 대해서도 무지하다. 이러한부족한 점을 공동개원은 해결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미래의 치과는 현재의 그것보다 더욱 효율적이 생산적인 것을 원하며, 공동개원은 이러한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용한 구조체라 믿고 싶다.

이글에서는 이러한 공동개원의 형태와 구성되는 과정, 그리고 이것을 움직이는 요소와 공동개원에서 소아치과가 차지하는 위상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공동개원의 개요

GROUP란 사전적의미로 “여러명의 사람 혹은 여러개의 물건들이 모여서 하나의 단위나 집단을 이루는 것,

또는 동일한 특징과 관심때문에 모인 다수의 사람들 혹은 사물들” 이라는 뜻이다. ADA에 의한 치과에서의 공동개원의 정의는 치과의사가 타 건강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효율적인 치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요한 규정들에 공식적으로 동의한 치과개업의 한 형태라고 하고 있다. 다른 정의로는 동일한 특징과 관심을 갖고 함께 모여서 하나의 단위를 형성한 다수의 사람들이다. 주목적은 나눔과 책임의 정신을 바탕으로 상호간 만족스러운 의사-환자 관계를 중심으로 놓고 치과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공동개원의 3대 원칙은 Compatibility, Philosophy, Direction이다. 첫번째 Compatibility는 일치성으로서 같이 그룹을 형성하려는 사람들간의 목적의식, 성격, 경제, 능력, 우선순위, 직업적인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일치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두번째 Philosophy는 무엇을 왜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내부적 철학과 동기를 결정해야 한다. 그 세번째 Direction은 추구하는 방향이 같은가,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고 무엇에 초점을 맞출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원칙에 의해 형성되는 공동개원의 형태는 Sharing principle(나눔의 정신)에 기준하여 크게 여덟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Associate
2. Group of practice
3. Partnership
4. Professional association-corporation
5. Consumer ownership
6. Government ownership
7. Comprehensive health care

8. Variation and combination of above
또한 group의 혼합형태에 따라 다섯가지로 분류된다.

1. 모두 일반의
2. 모두 전문의
3. 전문의와 일반의 혼합
4. 치과의사와 다른 일반 전문의
5. 위의 혼합형태

가장 보편적인 그룹의 형태는 “ONE-STOP FACILITY” 개념이 각광받고 있는 상황에서 세번째 전문의와 일반의가 혼합된 형태가 공동개원형태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2. 공동개원의 결성과정

공동개원의 결성과정은 크게 여덟단계로 나눌수 있고 각 단계마다 구성원간의 긴밀한 토론과 자기성찰을 통해 그 단계를 진행하고 한 단계라도 맞지 않다면 그곳에서 포기해야 한다.

1. 1단계 : 자기 성찰

이단계는 자기자신이 진정 공동개원을 원하는지 또 공동개원에 자기성향이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더 이상 진행을 해서는 안된다.

2. 2단계 : Group의 평가

첫번째로 Group 구성원으로서 적합한가를 평가한다. 또한 이곳에서 이익금이나 기타부분에 대해 나눌자세가 되었나를 확인하고 자기에 관한 모든것을 솔직히 털어 놓을 수 있는가를 검증한다.

3. 3단계 : 단기계획과 장기계획 수립

그룹 구성원이 단기계획에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가 알아야 한다. 장기계획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이 모든 과정이 나눔과 표출이라는 과정을 통해 무슨 구성원이 미리 인지하여야 한다.

4. 4단계 : Article of practice(Group constitution)

모든 결정과 자료를 모아서 그룹이 동의할 수 있는 일종의 법을 제정하여 규칙과 규제, 철학과 목적을 명확히

표현한다. 절대로 모든 구성원에게 있어 혼돈이 있어서는 안된다.

5. 5단계 : Assess the liability and Assess of potential members

모든 구성원이 갖고 있는 모든 것(치료능력, 방법, 건강 등)을 평가한다.

6. 6단계 : Table of organization

공동개원 manual제작에 들어간다. 공동개원형태, 각자의 기능, 경영, 의사 결정방법, 재정등 전반에 걸친 manual을 만든다.

7. 7단계 : Articl-Constitution Revision

8. 8단계 : Consultant

위의 각단계는 각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한가지라도 적합하지 않다면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특별한 자기 시간과 많은 사고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공동개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팀웍으로 같이 모이는 것은 시작이고, 함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은 과정이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공이라 말할 수 있겠다.

3. 공동개원에서의 소아치과

소아치과가 공동개원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 할 수 있다. 그 의미는 최근의 ONE-STOP FACILITY개념에서 공동개원에서 구성시 반드시 필요한 부분중의 하나가 소아치과이다. 또한 공동개원내에서 항상 환자개발의 baseline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소아치과는 여러진료 부분중에서 나름대로 독자적인 부분을 차지함으로써 정책결정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공동개원의 교정과전문의와의 쌍방향 필요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병원내의 환자할당에서도 상대적인 문제점이 적고, 외부에 병원이미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소아치과의 전문성을 자리매김하는데 아주 쉽다라고 단정지을 수 있겠다.

단독개원과 공동개원내의 소아치과의 전문성을 갖는 것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보겠다.

단독개원보다 장점

1. 개원시 경제적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2. Overhead가 감소된다.
3. 고가장비의 구매비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4. 인력관리에 들어가는 노력이 적어 자신의 흥미분야에 투자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다.
5. subspecialty의 개발이 용이하다.
6. 퇴직에 대한 준비를 쉽게 할 수 있다.

단독개원보다 단점

1. 자신의 의견을 꺾어야 할 경우가 있다.
2.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3. 외부소개환자가 적다.

4. 같은 직원으로부터 존경받기가 어렵다.
5. 정책결정 및 행동의 민첩성이 떨어진다.

III. 결 론

공동개원은 시작단계에서 부터 많은 준비와 생각이 필요로하는 쉽지 않은 모험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요즘같이 경쟁관계가 심화되는 사회, 그리고 사회적 욕구도 높아지는 현상황에서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아야 하며, 특히 이제 막 사회의 첫발을 딛고 후배치과의사나 변신의 기회를 보고 계시는 선배, 동료 치과의사들에게 공동개원에서의 소아치과진료는 매력적인 것이라고 감히 제안하고 싶다.